

지역 소식 통

정읍시, 가뭄 대응 '사료 작물 안전재배 단지' 조성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대응과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생산을 위해 '가뭄대응 사료작물 안전재배 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억6,000만원을 투입해 조사료를 재배·급이하는 한우 사육 농가 2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농가당 2ha 이상 규모의 재배단지를 기반으로 하며, 현재 설치가 완료된 관수시스템은 송수관 매설과 대용량 물탱크(10톤 이상), 7.5마력 펌프, 컨트롤러, 기계실, 센서한 등을 갖췄다. 반경 50m 이상 살포되는 스프링클러를 통해 1대만으로 8,000㎡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토양 수분측정 센서를 활용해 토양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관수가 이뤄져 정밀한 수분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가뭄 시에도 동·하계 사료 작물의 안정적인 생육이 가능해졌으며, 국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수입 사료 의존도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진드기 감염병 예방 10월까지 집중 홍보

정읍시보건소는 최근 등산, 공원 산책, 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8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홍보에 나섰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다. SFTS는 주로 4월부터 11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발열,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발열, 오한, 근육통과 함께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시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장화와 모자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농작업복과 일상복을 구분해 입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향사랑공모’ 청소년수련관 새 단장

정읍시, 기금 5000만원 투입... 노후 시설 개선 등 교육에 필요한 집기 교체 완료

정읍시는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청소년수련관 힙나는 활동공간 조성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열악한 활동공간을 개선해 청소년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방과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고향사랑기금 5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시설 개선 △휴식·학습 공간 마련 △문화 활동 및 교육에 필요한 책걸상과 집기 교체를 완료했다.



새로 마련된 공간은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의 △교육 및 자율학습 △동아리·소모임 활동 △문화·예술 체험 △휴식과 교류의 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

율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힙나는 활동공간 조성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활기차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누리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꿈을 펼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금'사업은 지역사랑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추진되며, 지역 주민과 출향인들의 정성이 아동·청소년, 어르신 복지와 문화·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롯데웰푸드와 '고창 고구마 시리즈' 제과 12종 출시를 기념한 팝업스토어를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주요 역세권 3곳에서 운영한다.

‘고참(창) 꿀맛이구마!’ 출시

고창군-롯데웰푸드, 기념 팝업스토어 13일까지 서울 3곳서 운영

고창군이 롯데웰푸드와 '고창 고구마 시리즈' 제과 12종 출시를 기념한 팝업스토어를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주요 역세권 3곳에서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5~7일 코레일용산역, 8~10일 합정역, 11~13일 잠실역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국립중앙도서관, 서울교통공사 '서울픽'과 협력해 진행된다. 지역 농가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로코노미(지역+경제)'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다.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들에게 '고참(창) 꿀맛이구마!'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포토존, 토크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고창 농특산물인 북분자죽, 고구마 말랭이, 수박음료, 땅콩 가공품 등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낙시어선 안전 운항 · 승객 준수사항 고시 개정

부안군, 운항횟수 · 속력 제한 · 운항전 인명안전설비 점검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부안군은 낙시어선 이용자가 증가하고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낙시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25일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낙시어선업자에 대한 지시 및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를 전부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낙시어선 운항자의 피로도 누적 등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항횟수를 제한하여 3회이상 운항을 금지하고 △가력배수갑판에서 바다쪽으로 3,000미터

이내의 수면과 배잡여·갈매여·사자바위 돌출암 주변 반경 100미터 이내의 수면을 추가로 영업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낙시어선 운항중에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해상의 여건 및 사정이 낙시어선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 낙시어선 영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인명안전 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운항 전 점검·확인을 의무화하고 △낙시어선의 운항속력을 어항구역 내에서는 7노트 미만으로, 협소로나 양식장 주변, 교각 통과 시에는 10노트 미만으로, 야간

운항 시에는 15노트 미만으로 한다. 끝으로 낙시어선 이용시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 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등 승객의 준수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낙시어선과 승객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군은 이번 낙시어선업자에 대한 지시 및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부안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낙시어선업계 종사자들과도 3차례에 걸쳐 간담회 개최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 내용에 반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청소년 미래 지원 · 지역사회 공감 확산... 행안부 장관 기관표창

고창군이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도 받았으며,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자체 중 고창군을 포함한 8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현장 발표를 거쳐 현장평가단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창군은 '기부자의 공감이 쏠아올린 지정기부 조기 모금 완료'를 주제로 지난해 추진된 지정기부 사업의 조

기모금 완료가 긍정적 사례로 부각되면서 호평을 받았다. 앞서 고창군은 지정기부사업인 '고창의 별 육성사업 시즌1' 영선고 야구부 지원 사업이 기부자들의 공감과 응원을 기반으로 단 2주 만에 목표액 200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또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목표액 6000만원을 6개월만에 조기 모금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도 전봉준 장군 동상 공원과



연계해 역사·문화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한 부분도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답례품 중간조지 선정 관리와 고창우체국과 MOU 체결을 통해 택배 박스와 서류봉투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한 부분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AI 기반 사료 무인 자동급이기 지원 추진

부안군은 축산업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사료 무인 자동급이기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료 무인 자동급이기 지원사업은 100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1000만원(군비 50%, 자부담 50%)을 투입하여 스마트 축산 인프라 구축 가속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사료 무인 자동급이기는 AI 기반의 인식 기술을 이용해 소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양의 사료를 자동 공급하는 방식이며,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하며 사료 급

이량과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사료 효율 제고 △노동력 절감 △출하율 향상 등이다. 급이량 조절을 통해 적정량의 사료 공급으로 소가 먹다 남기는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으며, 사료 급이에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급이 주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소의 성장을 촉진해 출하 월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부안군 축산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 질병 발생으로 위축된 축산농가를 살리고 축산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